

전남 작은영화관 누적관람객 100만명 돌파

화순·곡성 등 7곳 ... 농어촌 문화사랑방 역할 '톡톡' 도내 전역으로 사업 확대...해남·영광 등도 조성 중

전남지역 7개 작은영화관 누적 관람객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인구가 줄고 젊은 층이 빠져나가자 자취를 감췄던 시골 영화관들이 20~30여년 만에 문을 열면서 지역민들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도는 27일 오후 장흥 정남진시네마에서 '전남 작은영화관 관람객 100만명 돌파 기념식'을 연다. 전남 7곳 작은영화관의 누적 관람객이 지난 10일 기준으로 100만명(100만1503명)을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작은영화관 사업은 군 단위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2014년 1호점인 장흥 정남진시네마(99석)를 시작으로 고흥(2016년 2월·141석), 진도(2017년 7월·98석), 완도(2017년 9월·98석), 곡성(2017년 12월·95석), 화순(2018년 2월·124석), 보성(2019년 4월·96석) 등 7개 군에서 개관해 운영 중이다.

수십여년 만에 영화관이 생긴데다, 가격도 대도시에 비해 저렴한 5000~8000원 수

준이다보니 지역민들 호응도 컸다.

장흥 정남진시네마는 개관 4년 만에 29만5800여명이 찾았다. 장흥군 인구(7월 말 기준)가 3만8842명에 65세 이상 인구가 1만2624명인 것을 감안하면 지역민들의 대표적 '핫 플레이스'로 자리잡은 셈이다.

고흥도 23만7000여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고 진도 아리랑시네마(11만8100여명), 완도 빙그레시네마(13만1000여명), 곡성 작은영화관(7만4000여명), 화순 시네마(12만7000여명), 보성 작은영화관(1만7000여명) 등도 많은 지역민들이 찾았다. 운영실적도 양호해 7곳 대부분이 흑자를 기록 중이다.

대도시권과 멀리 떨어진 곳을 위주로 세

워지다 보니 문화생활에 굶주려 있던 현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면서 관람객 수가 늘어났다는 게 전남도 분석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지역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애초 목표(10곳)를 넘겼음에도 작은영화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담양·해남·영광·신안에 작은영화관을 조성 중이며 무안·강진·영암군은 내년도 사업 신청을 준비 중이다. 22개 시·군 중 장성과 함평만 작은영화관이 없는 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촌 주민들도 쾌적하고 안락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정책을 발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6일 독도를 비롯한 동해에서 열린 영토수호훈련에서 훈련에 참여한 해군·해경 함정이 기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도방어훈련 종료...두 번째 훈련시기 검토 육·해·공 항공기 10대 등 역대 최대 규모 전력 투입

지난 25일 오전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이 26일 낮 12시를 전후해 종료됐다.

해군 주관으로 실시된 첫날 일정과 달리 둘째 날 훈련은 해경이 주관하고 해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해경의 1500t급 경비함정 3척과 500t급 1척, 해군 함정 5척, 지자체 관공선 1척 등이 허가받지 않은 타국의 민간선이나 관광선 등이 우리 영해에 불법진입한 상황 등을 가정해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3대와 해경 특공대도 투입됐다. 첫 날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 10여 척,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를 포함해 육·해·공 항공기 10대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전력이 투입됐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을 포함해 해군 최정예 전력인 제7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가 참가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요원들과 해방대 신속기동부대 대원들도

동원됐다.

정부는 이번 훈련 종료와 함께 올해 두 번째 독도방어훈련 시기와 규모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방어의지를 과시하고 외부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전술을 숙련하는 차원에서 매년 두 차례 독도방어훈련을 전개해왔다.

지난해 훈련은 6월 18~19일, 12월 13~14일로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실시됐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첫 훈련 일정이 다소 늦어진 데다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행보가 더욱 노골화될 가능성이 있어 훈련 시점이 더욱 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훈련에서 처음 사용된 '동해 영토수호훈련'이라는 명칭은 독도 영유권 수호 의지뿐 아니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의 강력한 '육해공 일체 방어' 의지가 투영된 만큼, 당분간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손혜원 첫 재판서 투기 부인 "보안자료 아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사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 의원 측은 목포시로부터 취득한 자료가 '보안자료'였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손 의원의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남편 이이사장인 코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손 의원은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 "2017년 5월 18일에 목포시장 등이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보안자료라고 칭해지고 있다"며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님을 저는 재판

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2019년 1월에도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언론과 인터넷에서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씨는 "2017년 당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순천, 여수, 나주, 해남 돌지 않은 곳이 없다"며 "지방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한 행동이다. 이 일로 법정에서 선만큼 저희의 명백한 진실을 찾고 당시의 첫 마음도 반드시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당정, 소재부품장비 2조원 이상 반영 내년도 예산안 협의...미세먼지 예산도 두배 수준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예산을 작년보다 두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장석 정책위의장이 бри핑회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 무역보복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한다"며 "추가적 상황 변화와 적기 대응을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미세먼지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32.4만t) 대비 감축 비율을 35.8%(11.6만t)로 높인다는 방침이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내년

부터 전체 33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청년의 주거·일자리와 자선형성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충된다.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만9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 편성이 이뤄진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선 지역신용보증기금 재보충 출연을 통해 특별보증기금 5조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 연장을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랑 상품권(2조3000억~3조원)과 온누리상품권(2조~2조5000억원) 발행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도 확충된다. 보육 예산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 개선비는 36만원으로 3만원 올린다.

농업 직불금 예산은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되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지난 4월 당정청 협의에 따라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7000억원)를 증액 교부금으로 편성된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선 올해보다 13만개 확대된 74만개 일자리 예산이 반영된다. 2022년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2021년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연합뉴스

이병 2개월·일병·상병 각 6개월 복무하면 진급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씩 단축한다고 26일 밝혔다.

계급별 진급 복무기간 단축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병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일병과 상병은 각각 7개월에서 6개월로 준다. 즉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 6개월씩 근무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한다는 의미다. 다만, 병장은 현행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이다.

국방부는 "병사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도록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만 각 1개월씩 단축했다"며 "병장은 기존과 같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병역법을 개정해 공군 병사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1개월씩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국방부는 "군별로 다른 복무기간을 고려하고, 병장부터 이병까지 적정 인력 유지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병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차질 없는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군 전투력은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0억 투자

2분 모집입니다!
(주)오천경제, 010-3605-5000

- ▶ 10억이 20억이 될 수 있습니다
- ▶ 골프연습장 공사 중단된 토지
- ▶ 공동소유 개발 및 매매
- ▶ 경기도 연천군 임야 등 4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971)	광주교육대학교(2071)
모집 / 과정	· 금요일 오전반 2019.9.6.(금) 09:10 (초급반)	· 금요일 오후반 2019.9.6.(금) 14:10 (중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19.9.7.(토) 09:10 (특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19.9.7.(토) 14:10 (고급반)
모집 기간	2019. 8. 1(목) ~ 9. 7(토)	
수업 기간	2019. 9. 6(금) ~ 2020. 2.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 시간	09:10~13:00	14:10~18:00
수료후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원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 사별)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 의 : 062)950-3582~4 ·지도교수(선생명):010-3614-4160 <p style="text-align: center;">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 의 : 062)520-4243 ·지도교수(선생명):010-3614-4160 <p style="text-align: center;">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p>

부안곰소 토지매매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265-5외 14필 (계획관리지역)

- **출포·IC·10분거리 해안탐방도로 (현 공사중)**
- **곰소염전인접, 내소사 10분, 출포생태공원 10분**
- **조망 : 앞 - 곰소만바다 뒤 - 내변산국립공원**

매매가 평당 35만원
면적 약 2만평 분할 가능

리조트·숙박시설·근생 모든 업종 개발 가능

문의 010-5464-4448(주인)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 **신년서비스** ·
임대로 저렴하게 드림

위 치 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